

벨라루스 ICT 분야 기업 진출 방안

유성훈* · 정유미**

벨라루스는 동유럽과 CIS 지역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국가들 중 최근 ICT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부문에서는 인도와 함께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의 단일시장형성을 목표로 관세 장벽의 철폐 등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벨라루스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먼 나라로 인지되고 있다.

본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소한 벨라루스의 경제, 정치 및 사회적 특성을 소개하고, ICT 분야에 특화하여 시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럽과 북미 지역, 최근의 중국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목 차

- I. 서 론 / 2
- II. 벨라루스 일반 현황 / 3
 - 1. 경제적 특성 / 4
 - 2. 정치·사회적 특성 / 7
- III. 벨라루스 ICT 환경 분석 / 8
 - 1. ICT 발전 현황 / 8
 - 2. ICT 시장 현황 / 10

- 3. ICT 관련 정책 / 15
- IV. 벨라루스 투자 환경 분석 / 17
 - 1. 벨라루스 투자 환경 및 특징 / 17
 - 2. 해외기업 진출 현황 / 19
- V. 한-벨라루스 ICT 분야 기업 진출 방안 / 21
- VI. 결 어 / 23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416, shyoo@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205, yumi@kisdi.re.kr

I. 서론

벨라루스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시절 생산기지로 특화되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이 크게 발전되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이공 계열에서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시절부터 ICT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벨라루스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중 ICT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최상위 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5년 발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ICT 부문이 성장한 10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015년 벨라루스의 IDI 수준은 2010년 50위(5.30)에서 14단계 상승한 36위(7.18)로 CIS 국가 평균인 5.81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러시아(6.91, 45위) 보다도 앞서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정보화발전전략 2011~2015」과 「ICT 서비스 발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ICT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통신네트워크 확충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민스크시에 동유럽 최대 규모의 ICT 복합단지인 「하이테크파크(High-Tech Park, HTP)」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연합체인 「인포파크(Infopark)」를 조직하는 등 ICT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벨라루스가 가진 지정학적 이점과 유럽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2개의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 더욱이 잘 발달된 교통과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 자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ICT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아웃소싱 부문에서 역내 최고의 발전 수준 보이고 있고,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벨라루스 ICT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벨라루스 일반 현황

벨라루스라는 국가명은 ‘하얀 러시아’를 의미하며, 이는 ‘White Ruthenia’에서 유래하여 역사 상 한 번도 타타르족의 지배를 받지 않은 지역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벨라루스는 유럽 동부의 폴란드와 러시아 중간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국경으로 한다. 폴란드, 러시아, 독일 등의 지배를 거쳐 1922년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B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으로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의 일부가 되었으나 연방이 해체되면서 1991년 독립하였다. 벨라루스의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207,600km²이며 인구수는 940만 명이다. 지표의 고도는 해발 110~180m에서 200~300m의 분포로 대체로 낮고 평탄하며 총 면적의 13%가 소택지나 습원지대이다. 기후는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는 17~19℃, 겨울에는 -6~8℃의 분포를 보인다. 인구구성은 벨라루스인이 84%, 러시아인 8%, 폴란드인 3%이다. 종교는 러시아정교(80%)와 로마가톨릭교이다.

[그림 1] 벨라루스 지도



자료: CIA(2016)

1. 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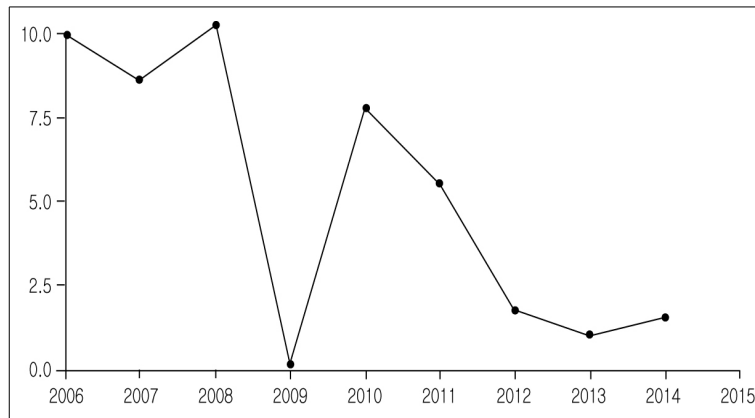
벨라루스의 GDP는 772억불, 1인당 GDP는 8,195불¹⁾이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46%, 서비스업 45%, 농업 9%를 이룬다. 기후가 한랭하고 습기가 많으며 토양이 척박하여 농업에 부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감자 재배 및 축산업 중심의 농업이 비교적 활발하다. 벨라루스는 유리한 교통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공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기계·전자·섬유·식품공업이 주요 분야이다. 주요 부존자원은 목재, 석유, 천연가스, 화강암 등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는 러시아(전체 무역량의 50%),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영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설비장치·수송기계·비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금속가공품·컴퓨터기기·의료기기 등이다. 2015년 외국인투자는 40억불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산업, 제조, 통신 순으로 그 투자액이 많았다. 현재 100여 개국이 벨라루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러시아, 영국,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등이 주요 투자국이다.

벨라루스의 경제는 러시아 경제의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과 정부 주도적 경제정책의 한계라는 내부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침공으로 농업 및 공업 기반이 거의 파괴되었으나 구소련의 계획경제 하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1년 독립 후에는 시장경제 편입이 순조롭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2008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8.3%를 기록하며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5.7%, CIS 국가 평균 7.1%를 웃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이는 벨라루스에 대한 주변 CIS 국가와 러시아의 수출 수요 증가, 석유가공품 및 비료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상승 및 러시아에서 석유를 싼 가격에 들여올 수 있었다는 외부적인 요소에서 기인하였다.

1) 2014.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2〕 벨라루스 GDP 성장률



자료: 세계은행(2016)

반면, 국내생산성 향상이 아닌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경제 성장은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하였고, 이는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현된다. 2009년 벨라루스의 경제성장률이 0.2%까지 하락하자, 벨라루스 정부는 엄격한 거시경제정책을 적용, 환율 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가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2010년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15%에 이르면서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또 복수환율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미화 대비 벨라루스 루블(BYR)의 가치가 70%가량 떨어지기도 했으며,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이 109%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실시한 엄격한 통화 및 재정정책의 결과로 2013년 초반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22%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보다는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거시경제가 불안정 하고 경제적 위험도 산재한다. 불균형의 위험, 소비자물가 상승 및 높은 대외채무 의존율은 아직 벨라루스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위기는 벨라루스의 정부 중심적인 경제정책 모델의 뿌리 깊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시장에서 지배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에너지와 자원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비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은 정체되고, 국영기업에서 이는 더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정부가 자원의 배분에 간섭하면서 경제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벨라루스의 경제현황을 분석한다.

2015년 1월 벨라루스의 유라시아경제연합²⁾ 가입은 경제의 자유화를 종용한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내에서는 상품, 자본, 서비스와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공통의 교통, 농업 및 에너지 정책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단일통화와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미래 목표로 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장벽을 낮추었으나, 수입제한 및 쿼터, 투자 제한 등을 포함하는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타 회원국으로의 자본 및 노동력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친화적 환경, 유연한 상품과 노동 시장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벨라루스의 EEU 가입은 생산물 시장, 무역, 금융시장 자유화 등의 분야에서 벨라루스에 득³⁾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⁴⁾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지역 및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르면 현재 벨라루스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생산성 저하, 낮은 경제성장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 주도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에서 찾고 있다. 물론 세계경제위기(2008~2009년) 이후 정부의 경제확장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듯하였으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속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자원배분 등이 현재 벨라루스가 겪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국제기구는 지배적인 국영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경제적 간섭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벨라루스 내에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CIS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94년 이후로 동일한

2)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회원국으로 하여 북유라시아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 1월 설립되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2015년 1월과 8월 각각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3) IMF Country Report No. 12/114

4)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en/country/belarus/overview>

대통령이 선임되면서 더욱 막강해진 대통령의 권한과 오랜 기간 시장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 급속한 경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정치·사회적 특성

1994년 선출된 보수 친러파 알렉산더 루카셴카(Alexander Lukashenka) 대통령이 현재까지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5선에 성공하였다. 벨라루스의 부패인식지수는 32로 전체 168개국 중 107위⁵⁾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지역평균(33)과 세계평균(43)을 밑도는 점수로 벨라루스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벨라루스의 2014년 인간개발지수(HDI)는 0.798로 188개국 중 50위⁶⁾를 차지하였다. 이는 높은 인간 개발(high human development)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교육기간(expected years of schooling)과 평균교육기간(mean years of schooling)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벨라루스의 높은 성인문해율(99.7%)과 90.2%에 달하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록률⁷⁾을 고려했을 때도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벨라루스는 특히 1인당 과학자 및 공학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2만 7천여 명이 457개의 과학연구기관에서 활동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라루스의 철도와 도로는 베를린-바르샤바-민스크-모스크바 간의 동서(東西)와, 러시아-핀란드-상트페테르부르크-우크라이나-몰도바-불가리아-그리스 남북(南北)

5)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cpi2015#results-table>

6) UNDP: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hdr_2015_statistical_annex.pdf

7)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2012

8) 벨라루스통계청: http://www.belstat.gov.by/en/ofitsialnaya-statistika/social-sector/science-and-innovation/osnovnye-pokazateli-za-period-s-__-po-___gody/the-republic-of-belarus-in-figures-2000-2012/

을 잇는다. 북부에서 남부로는 목재·펄프 등의 수출이 많고, 그 반대로는 곡물, 금속 가공품, 석탄 등의 수출이 많다.

이외에도 벨라루스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여파를 받은 국가 중에 하나로 원전 폭발로 발생한 방사능의 70%가 벨라루스 전 면적의 1/4에 퍼졌으며, 50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전체 농경지의 20%, 삼림의 23%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방사능 노출로 인한 질병치료 및 복구 등을 위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 30년간 2,36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⁹⁾

Ⅲ. 벨라루스 ICT 환경 분석

1. ICT 발전 현황

2015년 ITU가 발표한 ICT발전지수(IDI)를 살펴보면 벨라루스는 전체 167개국 중 36위(7.1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2010년 50위(5.30)와 비교하면 14계단(+1.88점) 상승한 것으로, 역내 러시아(45위, 6.91) 보다 앞서고 있다. 특히 IDI 세부 지수 중 기술(Skills) 부분에서는 4위(9.75)를 기록하였는데, 해당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9.8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교육 수준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특화된 벨라루스의 국가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세부 지수 사용(Use)에서 47위(5.40), 접근(Access)에서는 38위(7.68)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9) United Nations and Chernobyl: <http://www.un.org/ha/chernobyl/belaru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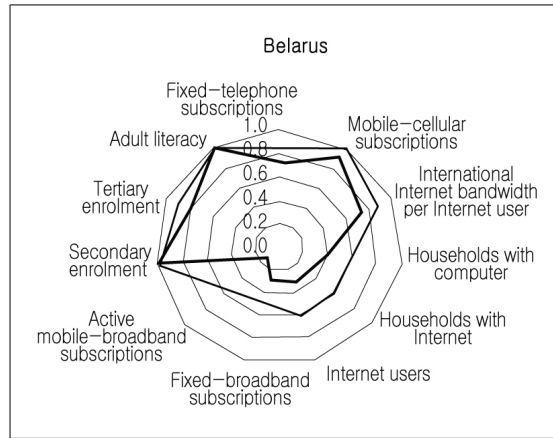
〈표 1〉 CIS 지역 IDI 현황 비교(2015년)

구분	통합	접근성(Access)	이용(Use)	기술(Skills)
벨라루스	7.18 (36위)	7.68 (38위)	5.40 (47위)	9.75 (4위)
러시아	6.91 (45위)	7.24 (48위)	5.52 (44위)	9.04 (19위)
카자흐스탄	6.20 (58위)	6.92 (56위)	4.54 (62위)	8.07 (55위)
몰도바	5.81 (66위)	6.70 (61위)	4.02 (68위)	7.63 (68위)
아제르바이잔	5.79 (67위)	6.11 (75위)	4.70 (60위)	7.34 (77위)
아르메니아	5.32 (76위)	6.08 (76위)	3.19 (88위)	8.06 (56위)
조지아	5.25 (78위)	6.20 (73위)	3.03 (90위)	7.76 (65위)
우크라이나	5.23 (79위)	6.27 (72위)	2.17 (109위)	9.25 (14위)
키르기스스탄	4.62 (97위)	4.16 (116위)	3.46 (80위)	7.85 (62위)
CIS 지역 평균	5.81	6.37	4.00	8.31
전 세계 평균	5.03	5.53	3.64	6.81
한국	8.93 (1위)	9.00 (9위)	8.42 (4위)	9.82 (2위)

자료: ITU(2015)

다음 [그림 3]에서 보듯이 벨라루스는 교육 수준 전반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0년에 비해 2015년 고등교육 지표에서 큰 성장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유·무선 통신 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유선통신 지표에서 벨라루스는 전체 16위를 기록, 모바일(53위)과 유선브로드밴드(51위)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벨라루스 IDI 세부 지표 2010년과 2015년 비교



자료: ITU(2015)

그러나 벨라루스 ICT 분야 발전에 몇 가지 제약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지위를 가지고 있는 ‘Beltelecom’의 존재는 유선통신과 인터넷접속채널 등의 인프라 확충에 부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 수준은 ICT 콘텐츠 부족과 함께 또 다른 약점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벨라루스 ICT 부문 발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ICT 시장 현황

2015년 말, BMI가 발표한 「Belarus Telecommunications Report 2016」 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ICT 시장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다. 벨라루스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국화폐 가치 평가절하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이 하락하였으며, 통신사업자 또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2015년 말 시작된 4G 네트워크 서비스가 해당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만약 제3의 사업자가 해당 네트워크의 대여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거나, 대여료를 사업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문의 성장 또한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G 모바일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벨라루스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G 모바일 시장의 경우 2019년에는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약 54%(644만 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선시장 또한 주요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벨라루스 ICT 시장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f	2016f	2017f	2018f	2019f
유선 (Main Telephone Lines)	회선 수(천 개)	4,283	4,359	4,415	4,451	4,398	4,329	4,244	4,145
	100명당 회선 수(개)	45.1	45.9	46.5	46.9	46.4	45.8	45.0	44.1
모바일 (Mobile Phone Subscribers)	가입자 수(천 명)	11,127	11,542	11,770	11,876	11,959	11,983	11,995	12,007
	100명당 가입자 수(명)	117.2	121.5	123.9	125.1	126.1	126.7	127.2	127.8
3G & 4G	가입자 수(천 명)	3,103	3,700	4,400	5,016	5,568	6,013	6,314	6,440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27.9	32.1	37.4	42.2	46.6	50.2	52.6	53.6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천 명)	3,240	3,504	3,741	3,914	4,050	4,095	4,136	4,173
	100명당 가입자 수(명)	34.1	36.9	39.4	41.2	42.7	43.3	43.9	44.4

f: BMI forecast

자료: BMI(2015)

BMI 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 모바일 주요 사업자 MTS, Velcom, Life:)가 3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단말기와 요금 결합 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높은 수입 비용으로 인해 고가의 새로운 단말기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벨라루스 4G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 개의 사업자(beCloud)가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 후, 해당 네트워크를 다른 통신 사업자에 비용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4G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부 소유인 beCloud가 해당 시장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불확실하다. 벨라루스 ICT 시장에 대한 BMI의 SWOT 분석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벨라루스 ICT 시장 SWOT 분석

강 점(S)	약 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인구가 젊음 • MTS, Velcom, life:)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 이동통신시장에 해외기업이 투자진출 •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3G 서비스 제공 •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브로드밴드 사용료와 관세를 인하 • 허가 받은 ISP에 한하여 Wi-Fi망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해당분야 자율화에 기여 • 유선 시장에서 Beltelecom과 CosmosTV가 경쟁 • Beltelecom의 IPTV 서비스 ‘Zala’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TS와 Velcom이 이동통신시장의 90%를 차지 •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 둔화 • 극심한 인플레이와 경제위기로 ARPU가 상대적으로 낮음. 싼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증가 • Beltelecom은 100% 국영기업으로 유선통신에 대한 큰 투자가 어려움 • Beltelecom이 유선통신 부문을 독과점하고 있고, 네트워크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 규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어려움. Beltelecom의 민영화 좌절, 유선브로드밴드 시장의 대체사업자 등장이 어려움
기 회(O)	위 험(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및 태블릿,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 2011년 경제위기 이후로 ARPU가 지속적으로 증가. 개인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증가세 뚜렷 • 콘텐츠 사업사의 기회가 증가 • 단일 LTE 네트워크(beCloud) 사용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비용을 감소 • 4G서비스는 2015년 상용화될 예정 • 대체 ISP 사업자들이 등장하여 Beltelecom의 투자확대와 서비스가격 하락을 중용 • Beltelecom의 결합서비스(triple play) 상용화로 유선브로드밴드·전화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시장의 포화 • 광케이블 등 유선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 확대 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요가 둔화 • 무선통신이 발전이 유선통신의 이용을 저해 • 정부의 인터넷 트래픽 규제 움직임이 브로드밴드 및 인터넷 서비스 성장을 방해 • MTS를 민영화 움직임이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 반면, Beltelecom 사유화 의도는 없어 보임 • 단일 LTE 네트워크 임대 조건이 사업자 간 차별화될 경우 형평성 문제 초래 • Beltelecom이 국영기업이고 정부가 대표 규제자로 존재하는 한 유선브로드밴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어려움

자료: BMI(2015) 재구성

벨라루스의 주요 통신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 시장의 경우 벨라루스 정부 소유인 Beltelecom이 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모바일 시장은 MTS, Velcom, Life:)가 각각 45.5%, 42.5%, 12.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4G 서비스의 경우 BeCloud가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이다.

〈표 4〉 벨라루스 ICT 사업자 현황 #1

사업자명	서비스	지배(소유) 구조
Beltelecom	- 유선통신 - 데이터 & 인터넷	- 정부: 100%
MTS Belarus	- 모바일(GSM/GPRS/EDGE): 45.5% 시장점유율	- Mobile Telesystems of Russia: 49% - Mehdugorodnaya Svyaz: 51%
Velcom	- 모바일(GSM/GPRS/EDGE): 42.5% 시장점유율	- Telekom Austria: 100%
Life:)	- 모바일(GSM): 12.0% 시장점유율	- Turkcell: 80% - 정부: 20%
beCloud	- 모바일(4G LTE 네트워크)	- National Data Peering Center: 51% - Konstantin Nikolaev: 49%

자료: BMI(2015)

〈표 5〉 벨라루스 ICT 사업자 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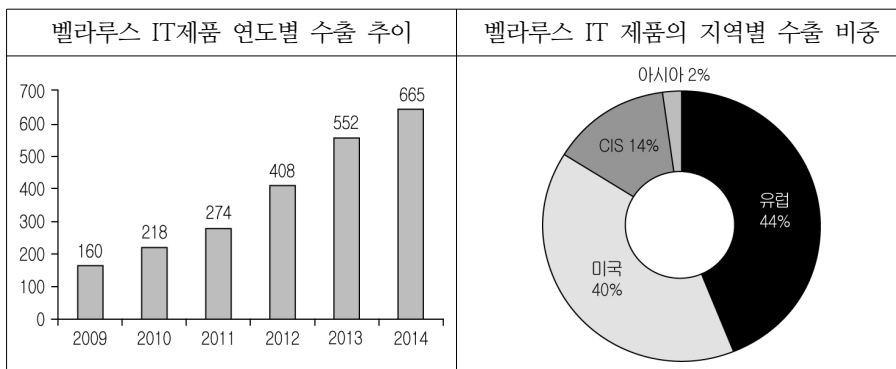
사업자명	주요 현황	비고
Beltelecom	Beltelecom은 벨라루스 유선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로 1995년 우정통신부에서 분리된 후 몇 번의 민영화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벨라루스 정부 소유로 남아있음. 유선서비스 외에도 벨라루스의 최대 모바일 통신사인 MTS 벨라루스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로 유선전화, 유선인터넷, 브로드 인터넷, IPTV, 융합서비스(Triple-Play)를 제공 중	유선 독점
MTS Belarus	벨라루스 최대 모바일 통신 공급자로 지분의 51%는 국영기업인 Beltelecom 과 Mehdugorodnaya Svyaz이, 49%는 러시아 기업인 Mobile Telesystems (MTS)가 소유하고 있음. MTS는 지속적으로 MTS Belarus의 운영권을 획득	모바일

사업자명	주요 현황	비고
MTS Belarus	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벨라루스 정부가 이를 거절해왔음. 2010년부터 3G와 3.5G 서비스를 국가 전역에 공급해왔으며 인구의 39%가 이를 이용하고 있음. 2012년부터는 Beltelecom과 함께 수도 민스크에 ADSL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모바일 지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m-commerce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음	모바일
Velcom (舊 MDC)	벨라루스의 제2 무선통신 공급자로 본래 Beltelecom, Beltechexport과 사이프러스의 SB Telecom이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SBT Telecom이 2007년부터 독점 운영권을 획득하였으며 2010년 Telekom Austria가 30%의 지분을 인수함. 2006년부터 3G서비스를 시범 개시하였으며 2009년 5MHz 대역을 획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3G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부족한 상황임. 3G 서비스 가능대역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3년 모기업 Telekom Austria와 협력하여 기업가입자를 위해 130개국에서 활용 가능한 국제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함	모바일
BeST	BeST는 벨라루스의 제3 무선통신 공급자로 전체 무선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부터 3G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통신 속도를 7.2Mbps까지 높여 화상통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2010년 HSPA+ 기술 시범도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SMS banking서비스 및 모바일 TV 서비스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모바일
BelCel	영국의 Cable & Wireless와 벨라루스 우정통신부가 합작으로 세운 회사로 Beltelecom이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 2012년 3G서비스를 도입하고 LTE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모바일
Cosmos TV	벨라루스의 최대 케이블TV 기업으로 30만 가구에 방송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미국의 Telcell과 벨라루스 라디오 TV방송센터가 설립하였으나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 투자자들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2002년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0년에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였음. 같은 해 HDTV서비스를 벨라루스에 최초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방송과 인터넷을 묶은 융합상품을 출시하였으며 Beltelecom과 함께 DVB-T2 디지털방송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오고 있음	케이블
beCloud	2013년 정보통신부로부터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 국가 데이터전송망 계획을 발표하였음. 현재 벨라루스 4G LTE망 대역을 유일하게 할당받아 벨라루스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줄이기 위한 타 기업의 주파수 공급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벨라루스 대통령 산하의 Operative Analytical Center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4G

자료: BMI(2015) 재구성

한편 벨라루스는 매년 공급되는 우수한 ICT 인력을 활용하여 ICT 아웃소싱 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 벨라루스의 IT 제품 수출액은 6억 6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유럽(44%)과 미국(40%)이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이며, 아시아의 경우 2%에 그치고 있다.

[그림 4] 벨라루스 IT 제품 수출 통계



자료: Global Services Survey: Top 20 Outsourcing location list

3. ICT 관련 정책

벨라루스 정부는 앞 선 수준의 정보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ICT 인프라 구축과 ICT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의 벨라루스 ICT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ICT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구현」으로 분석된다. 우선 벨라루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 네트워크에 xPON, Ethernet(GPON 포함)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며 WIMAX와 LTE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확충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 도입과 정부부처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웹포털 포함)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벨라루스는 2001년 설립된 인포파크와 2005년 추진 기반을 마련한 하이테크 파크를 통해 ICT 시장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인포파크는 ICT

의 발전과 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IT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하이테크파크를 통해 국가 경제 및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하였다. 2009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및 행정 활동을 시작한 하이테크파크는 벨라루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Skype와 대적할 어플리케이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Viber 역시 벨라루스의 하이테크파크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다.

나아가 벨라루스는 「정보화발전전략 2011~2015」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ICT 발전을 추진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3조 8,286억 벨루블(약 3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데, 할당된 정부예산액 규모만 약 7,129억 벨루블(약 6,788만 달러)이다.¹⁰⁾ 「정보화발전전략 2011~2015」의 9개 하부프로젝트 내용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정보화발전전략 2011~2015 - 9개 하부 프로젝트

구분	주요 내용	예산 규모 (단위: 벨루블)	비고
국가정보통신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통신 인프라 구축 - 신기술 적용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축 - 광섬유 네트워크 확충 - 4G 도입 및 통신서비스 수출 증가 	약 3조 6,530억	고정자산: 100%
전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서비스 확산을 통한 정부 효율성 제고 - 전자정부 기반 조성 -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 	약 763억	R&D: 43.7% 유동자산: 56.3%
전자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서비스를 통한 무역 촉진 - 전자 문서를 통한 세관 신고·통제 제도 도입 	약 56억	R&D: 66.7% 유동자산: 33.3%
e-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 향상 - 치료·진단·예방 서비스 제공 - 인식 제고 및 질병발생률 감소 	약 175억	R&D: 42.9% 유동자산: 57.1%

10) R&D 투자 968억 벨루블, 유동자산 투자 794억 벨루블, 고정자산투자에 5,366억 벨루블

구분	주요 내용	예산 규모 (단위: 벨루블)	비고
전자고용 및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과 사회보장 부문 서비스 품질과 정책 효과 제고 전자 서비스를 통한 노동부와 복지부 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약 139억	R&D: 57.0% 유동자산: 43.0%
전자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사회 발전 환경 조성 일반·전문 교육 수준 향상 교육환경 접근성 제고 	약 149억	R&D: 55.5% 유동자산: 44.5%
국가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 부문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웹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벨라루스 문화유산 및 역사를 담은 콘텐츠 개발, 이용자 수 증가 문화 정보 관리를 위한 DB 구축 	약 271억	R&D: 77.5% 유동자산: 22.5%
ICT 안보 및 디지털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적합한 ICT 환경 조성 정보보안 시스템 개발 및 신뢰 강화 안전한 전자 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지불시스템 활용 	약 202억	R&D: 71.1% 유동자산: 28.9%
IT 서비스 수출산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분야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ICT 서비스 수출 증대 IC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형성 	약 0억	

IV. 벨라루스 투자 환경 분석

1. 벨라루스 투자 환경 및 특징

벨라루스 통계청에 의한 2013년 외국인 총 투자액은 149억 달러, 해외투자는 31억 달러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러시아(52.5%), 영국(25.3%)가 가장 많았고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1~2%)대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투자는 교통·통신산업(39.9%) 부문에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39.1%), 제조업(11.1%)가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경제자유점수(Index of Economic Freedom)는 48.8점으로 전체 178개국

중 157위를 차지하면서 경제자유가 억압된 그룹(repressed group)에 속한다. 특히 재산권(20점), 투자자유(20점), 금융자유(10점)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벨라루스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엄격한 선별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허가처리 역시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¹¹⁾ KOTRA의 현황분석 또한 경제자유지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 경제 분야에 정부의 간섭과 제재가 여전히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개발 활동이 힘들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의 창출을 위해 공개시장(open market)과 경쟁을 통한 생산력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업운용(doing business) 순위에서 벨라루스는 2015년 57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인접 CIS 국가인 러시아(62위), 우크라이나(96위) 보다 훨씬 앞선 순위이다. 비즈니스와 재산 등록 및 면허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나 전기접근(148위), 국경무역(145위), 신용(104위)의 항목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전체 고용율과 GDP의 부가가치 중 민간 기업이 구성하는 비율이 유럽·중양아시아(ECA) 지역에서 최하위그룹에 속한다.

급여세는 12~15%, 법인세율은 18%이며, 전체 세금부담이 국내소득의 25.4%에 해당한다. 정부의 지출이 국내생산의 42.9%에 달하며, 공채(公債)가 GDP의 37%에 이른다. 정부는 여전히 외부 용자와 보조에너지에 높은 의존율을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벨라루스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기본요건으로 벨라루스는 정부는 현지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 현지고용, 수출 등의 항목을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은 벨라루스 정부의 보증, 투자 자원의 집중화 등이다. 벨라루스 내 6개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s, FEZs) 내 투자 시 처음 소득을 신청한 수 향후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10%까지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FEZs 내에 건물이 위치한 경우 부동산세 역시 면제한다.

11) KOTRA, 2014

또, 하이테크파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5년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China-Belarus Industrial Park)에서는 입주기업으로 등록한 후 10년간 법인세, 소득세 및 부동산 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2027년까지 제공한다. 중소도시로의 투자에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벨라루스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동 국가 및 중국으로부터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2012년 중국은 민스크 외곽에 대규모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China-Belarus Industrial Park)를 50년의 동안 운영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를 통한 중국 기업의 진출 등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8,048만²의 규모로 민스크 국제공항 가까이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에서는 전자제품, 생물의학, 화학, 기계공학 분야에서의 산업 발전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는 향후에도 벨라루스 내 정치적 환경에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벨라루스와 EU의 정치적 관계가 가장 나빠졌으며, 미국 역시 벨라루스의 정치적 현황에 대해 명백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유럽에서의 대 벨라루스 투자가 65억불 규모로 가장 컸으며 미국에서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정치는 외국인 투자 유입에 덜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²⁾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벨라루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2. 해외기업 진출 현황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나 합작투자사인 Bosch, 3M, Deloitte & Touche, Ericsson, SB Telecom, Alcatel SEL을 비롯하여 Coca-Cola, MacDonald's, Maersk Medical, Marks & Spencer 등이 벨라루스에 이미 진출했다. IT 분야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12) <http://belarusdigest.com/story/who-invests-belarus-13783>

어 서비스가 벨라루스 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프로그래밍 아웃소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약 650개의 ICT 기업 및 기관이 있으며, 25,000명 정도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구소련연방부터 IT 생산기지로써 벨라루스가 가진 생산기반 및 축적된 인력과 노하우의 영향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스크에 위치한 하이테크파크에는 국내외 IT 기업이 집중되어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EPAM, 체코 프라하에 본사를 둔 IBA 등 100대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 특히 IT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련 기업이 다수 진출하였다.

<표 7>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 주요 기업 현황(100대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

회사명	주요 사업
EPAM	미국에 본사를 두고 동유럽을 주요 타겟으로 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과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업
IBA	체코 프라하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500대 소프트기업, 100대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IT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지원,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
Intetics	미국과 동유럽 국가에 원거리 IT 시스템 개발, 통합과 서비스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으로 500대 소프트웨어 기업, 100대 글로벌 서비스 공급 기업과 100대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으로 선정
ITTRANSITION	기업 포탈 서비스 개발 및 유지 지원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이베이, 페이팔, 필립스, 도요타 등 다양한 기업의 상거래 시스템을 지원
SAM Solution	Belarusian State 대학 컴퓨터 공학 졸업자들이 설립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유수의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서비스 외에도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지원 중

벨라루스의 親러시아적 성향을 반영하듯이 전통적으로 러시아 기업의 벨라루스 진출이 많았으나 최근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 및 유럽기업의 아웃소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벨라루스에 지사의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벨라루스 내 한국 교민 전체가 100여 명 남짓으로 한국과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문과 양국 ICT 주관 부처 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좀 더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현지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 최초로 한국의 對벨라루스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SK 하이닉스가 현지 기업인 Softeq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다. LS 네트워크의 경우 벨라루스 물류유통 RFID 감시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역정보통신(KTNET)은 2014년 벨라루스 인포파크와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V. 한-벨라루스 ICT 분야 기업 진출 방안

벨라루스는 과거 기계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해당 분야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ICT 분야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벨라루스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ICT 관련한 모든 서비스(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프트웨어와 아웃소싱 시장의 경우 벨라루스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진 분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 위치한 동구권 최대의 IT 콤플렉스인 하이테크파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산업이 상당히 발달하여 유럽 및 미국의 아웃소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벨라루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EPAM IBA, Intetics 등과 같은 주요 아웃소싱 기업을 활용한 시장 진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벨라루스 ICT 아웃소싱의 장점은 다음의 <표 8>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8〉 벨라루스 ICT 아웃소싱 장점

구분	내 용
풍부한 숙련 인력	과거 소련의 컴퓨터 생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과거부터 관련 인력을 양성해 옴. 16,000명의 전문가가 존재하며 매년 3,90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인력공급이 왕성하게 이루어짐.
높은 기술 수준과 창의성	전반적인 IT 기술수준이 높아 IBM, Sun, Microsoft 등 세계 우수 IT기업의 훈련소가 존재하며 기초 학문이 잘 되어 있어 Viber를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관련 사업을 선두하고 있음
낮은 서비스요금	벨라루스의 요금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여 가격 경쟁률이 뛰어남
지리·문화적 요인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유럽 국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거리적 측면의 이점을 지니고 있음. 유럽에 가까이 위치하여 서구 문화의 기업들과 협력하는데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 진행이 수월함
높은 인간개발지수	벨라루스는 UN 인간개발지수 187개국 중 50위에 위치하여 비슷한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보건, 교육 등 여러 면에서 높고 안정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높음

벨라루스의 ICT 아웃소싱의 장점은 벨라루스 ICT 분야 투자의 장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왜 벨라루스에 투자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왜 벨라루스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보다 매우 단순하고 명료할 수 있다. 대부분 언어·문화적 장벽과 지리적 접근성, 정치적 안정성 등을 한국기업이 벨라루스에 투자하기 힘든 요소로 언급한다. 반면, 앞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첫째로, 벨라루스의 풍부한 IT 인력, 둘째로 IBM, Sun, Microsoft 등 세계 우수 기업의 훈련소가 벨라루스 내에 존재할 정도로 전반적인 IT 기술 및 기초학문 수준이 높음은 강조할만 하다. 셋째로,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저렴한 물가와 임금, 넷째로,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유럽 및 CIS 국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국가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보건, 교육 등의 수준이 비교적 높고 안정되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벨라루스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특별경제구역

및 단지 등에 적용되는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벨라루스는 ICT 인프라 및 기술 수준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고,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전자정부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는 개발되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부처 간의 연결과 서류의 DB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나 비즈니스 및 일반인들의 해당 서비스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ICT 활용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KOTRA 분석에 따르면 현지 ICT 업체들의 경우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ICT 제품에 대한 높은 해외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우리 기업의 시회 요인으로 보이나,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보다는 미래 수요 창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 상품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동일 제품을 국내 기업이 생산·판매하고 있을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해 각종 가격 제한 정책 및 행정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차별화된 아이템 선별이 중요하다.

Ⅵ. 결 어

벨라루스는 CIS와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가장 젊은 인터넷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다. 벨라루스 인터넷 이용자 중 15~34세의 비중이 전체의 61%에 달하며,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의 ICT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를 가진 계층이다. 벨라루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36.5%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질의 인적 자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벨라루스가 세계 ICT 시장에서 아웃소싱의 강점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다. Gartner는 벨라루스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많은 나라이지만 높

은 교육 수준의 경쟁력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로 평가하였다. 아직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벨라루스의 ICT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EU와 유라시아라는 커다란 시장에 대한 접근성, 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고려하였을 때 벨라루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CT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과 아웃소싱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벨라루스와 하드웨어 측면에 장점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BMI Research (2015). “BELARUS TELECOMMUNICATIONS REPORT 2016.”
London: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
- Ian Marriott & Allie Young (2011). “Analysis of Belarus as an Offshore Services Location.” Gartner
- IMF (2012). “Republic of Belarus: Selected Issues – IMF Country Report No. 12/114.” IMF
- ITU (2015).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5.” Genev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2013). “Invest in Belarus—Guidebook 2013–2014.”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http://development.by/about/\(IBA Group\)](http://development.by/about/(IBA Group))
[http://hdr.undp.org/\(UNDP\)](http://hdr.undp.org/(UNDP))
[http://www.belstat.gov.by/en/\(벨라루스통계청\)](http://www.belstat.gov.by/en/(벨라루스통계청))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o.html>
[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KOTRA\)](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KOTRA))

<http://www.transparency.org/>(국제투명성기구)

<http://www.un.org/ha/chernobyl/belarus.html>(UN&체르노빌)

<http://www.worldbank.org/en/country/belarus/overview>(세계은행)